

21세기는 일과 놀이의 구분이 모호해 질 것이라고들 한다. 즉 놀듯이 일하고, 일하면서 놀아야 한다. 기존의 이분법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된다'고 타박을 받을 만한 것이 '죽'도 '밥'도 아닌 새로운 퓨전음식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얼마 전부터 '퓨전(fusion)'이란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퓨전이란 말은 말 그대로 '녹여 합친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퓨전이란 말이 왜 유행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바로 이전의 이분법이 더 이상 세상을 설명하는 데 혹은 발전시키는 데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전에는 서로 분리되었던 장르의 통합을 시도한 퓨전 음악이나,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통합한 퓨전 요리들의 인기가 한창이다. 급기야 이런 퓨전의 열기는 단단하게 굳어져서 다시는 녹지 않을 것 같았던 일과 놀이라는 이분법을 서서히 녹여가고 있는 중이다.

### '녹아내리는' 일과 놀이의 이분법

월드컵 4강 신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히딩크는 우리 선수들에게 '즐기는 축구'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일과 놀이라는 이분법이 비교적 단단하게 굳어져있던 기성세대들에게 이는 이해되기 힘든 주문이었다. 일은 심각하게 골똘히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고, 놀이는 재미있게 즐기는 하찮은 것이었다.

이런 구분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웃거나 떠드는 것을 매우 불경(?)한 일로 치부하기도 했다. 이런 이분법은 축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 축구 선수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입 꼭 다물고 열심히 달렸다. 하지만 그 결과는 월드컵 1승도 거두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이 다였다. 그러던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이란 위업을 달성한 데는 일과 놀이의 퓨전인 '즐기는 축구'가 도입되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된다.

21세기는 일과 놀이의 구분이 모호해 질 것이라고들 한다. 즉 놀듯이 일하고, 일하면서 놀아야 한다. 기존의 이분법으로는 '죽도 밥도 안 된다'고 타박을 받을 만한 것이 '죽'도 '밥'도 아닌 새로운 퓨전음식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예상은 이



미 실현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가까운 예가 프로 게이머나 애니메이션 작가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즐기는 취미 혹은 놀이를 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

## 일과 놀이의 이분법을 넘어

글\_ 김정은\_ 명지대 교수



서 일과 놀이의 절묘한 퓨전인 이들 직업은 현재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자 21세기 유망 직업들이다.

### 행복한 삶! 생산적인 삶!

이제는 일과 놀이라는 이분법을 정말로 깨야 한다. 일 속에서 재미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 재미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놀이에서 일의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일까지는 아니어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매니아가 되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한은 있으면 좋고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21세기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필수 조건들이다.

행복한 삶! 생산적인 삶! 바로 이것이 휴테크가 여러분들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KOVA